

제3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올해로 38회를 맞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6월 29일(수)~7월 2(토)일까지 “함께 나누는 안전의식, 함께 누릴 밝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비롯해서 제23회 국제 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전시회, 전문분야 기술 세미나, 안전보건 관련 사례발표 및 경영대회, 국제행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협회는 “작업환경측정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마련한 ‘재해예방종합홍보관’에 유관단체로 참여,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알리는 장을 마련하였다.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

7월 1일(금) 오전 10시, 코엑스 전시장(COEX) 3층 오디토리움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최병수 회장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안전·보건관계자, 전국 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렸다.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노사가 만족하는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안전보건환경문제 대응책 마련, 선진국 수준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으며 이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치사에서 ‘안전복지사회’의 비전을 갖고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05~2009년)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며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 등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와 산업보건분야의 획기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1. 사업주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산재예방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 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 개회사를 선언하고 있다.
3.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 가운데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4

제23회 국제 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 전시회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함양하고 사업장내 우수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 전시회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코엑스 전시장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13개국 178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협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마련한 '재해예방종합홍보관'에 유관단체로 참여, 근로자 개인별 건강측정 데이터와 건강진단 데이터를



5

연동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과 한마음혈액원을 알리는 헌혈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6

- 4-5. 제 23회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전시회 개관에 앞서 단체장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6. 최병수 회장이 전시에 참가한 업체의 설비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꼼꼼하게 만져보고 있다.
7.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마련한 '재해예방종합홍보관'에 협회가 유관기관으로 참여했다.
8. 협회는 이번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을 실행해 보이는 행사를 가졌다.
9. 협회는 온라인 원격 건강관리시스템과 더불어 한마음혈액원을 알리는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7



8



9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005. 6. 29(수) ■ 주 최 : 대한산업보건협회 ■ 후 원 :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

협회는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6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1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사업주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여 개선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10.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최병수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 11. 산업보건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 중인 노동부 김종호 과장
- 12. 연자: 연세대 김치년 교수
- 13. 연자: 한양대 노영만 교수
- 14. 좌장: 한국산업위생학회 김정만 회장
- 15. 사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광호 국장
- 16. 지정토론자: 한국경총 김판중 팀장, 대구가톨릭대 윤충식 교수
- 17. 지정토론자: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김중진 회장, 한국노총 조기홍 부장